

고규홍의 '나무 생각'



숲을 지켜 온 어리석지만 가장 영리한 방법

여름 햇살은 뜨거워지고 숲 그늘은 더 짙어졌다. 이즈음이면 늘 숲에 들어서고 싶어지는 마음을 여쩍 수 없다. 햇살을 피해 초목의 숲 그늘을 걷는 것도, 쏟아지는 빗줄기에 몸을 맡긴 채 빗소리 들으며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숲을 찾는 건 원초적 생명으로의 회귀가능일지 모른다.

제주에 가면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이라는 이름의 숲이 있다. 원시적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천연의 원시림이다. 비자나무가 주종이어서 '비자나무 숲'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나무들도 많다. 자귀나무·아왜나무·머귀나무·후박나무 같은 난대성 식물들은 물론이고, 나도풍란·공짜개나·흑난초·비자란 같은 희귀 식물까지 끌고루 섞여서 안정적 식생을 이룬 건강한 숲이다. 자연히 식물에 깃들여 사는 새들과 곤충도 다양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숲하게 많은 미생물이 어울려 살 것이다. 온갖 종류의 생물이 편안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천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숲이다.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한 이 숲

의 전체 면적은 무려 44만8758평방미터. 비자나무 보호림으로는 세계적 규모다. 2570그루의 비자나무가 곳곳에서 현철하게 자랐다. 이 숲에서 가장 오래된 비자나무는 800년쯤 됐고, 대부분은 300년에서 600년쯤 되는 나무들이다. 숲의 상당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고, 1Km 남짓의 짧은 구간만 관람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출입을 제한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숲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부 관람로를 조성해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한 것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숲에는 합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제주 사람들은 이 숲의 비자나무를 지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숲 안에 들어가는 걸 엄격히 금지했다. 심지어 "이 숲 안에 들어가면 해도 천벌을 받는다"는 전설까지 지어 냈고, 제주 사람들은 이 황당무계한 전설을 어리석음 정도로 철저히 믿어 왔다. 숲을 온전히 지켜낸 건 전설이었던 셈이다.

처음부터 제주 사람들이 '다양한 생명의 공존' 혹은 '지속 가능한 생명 공존'

체'라는 거시적인 목적으로 숲을 보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순전히 정치 경제적 이유가 있었으니 즉 국가 차원에서 점어서 비자나무를 지켜 왔다. "탐라국의 왕자 수문나가 비자를 조정에 바쳤다"며 제주 비자나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고려사'를 비롯해, "주요 국가 자원인 이 숲의 비자나무에 대해 벌목을 금지한다"고 기록한 조선 예종 때의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이를 증거한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비자나무 숲은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이젠 천연 자연의 보존 구역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진 숲이 되었다. 그동안 산업화의 와중에서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내고, 나무에 깃들여 살던 숲한 생명들을 내쫓았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숲이라 부를 만한 자연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숲이 원시림 상태로 남았다는 건 기적처럼 고마운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비대면 산업이 비롯된 디지털 산업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라고들 이야기한다. 거리 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생활에서 디지털 산업이 중요한 변

화를 이끌어 갈 것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땅에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미세먼지를 이야기하고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했고, 숲의 중요성을 앞다퉈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머뭇거리는데 사이에 북극의 빙하는 더 녹아내렸고, 여름 기온은 '역대급'으로 치솟았으며, 살 곳을 잃은 미생물은 병원균이 되어 사람의 몸에 스며들었다.

지금이라도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에게 공간을 내어 주고, 더 넓은 땅에 숲을 보존하는 건 결코 다른 생물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다른 생명의 보금자리를 지켜 주는 이타적인 행위는 더불어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한 이기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황당무계한 전설을 믿으며 지켜 온 천연의 숲을 지금 다시 찾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부동산 정책 실패 '균형 발전'으로 극복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가 크고 작은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오름세는 잡힐 기미가 없다. 여기에는 최근 지방 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이 엿그제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전망'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18년 6만 명, 2019년 8만 3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은 지난 2000년 1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수도권 공랑 총량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이 다시 가속화하는 추세다. 특히 호남에서는 지난 4년간(2016-2019년) 6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그 이전 4년(2012-2015년)의 1만 명에 비해 여섯 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지방 인

구의 수도권 대거 유입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지방의 인구와 기업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지방은 주력 산업 부진과 인구 감소로 더욱 위축되고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단순한 대출 규제나 징벌적 과세보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 전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구조를 혁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분산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2차 이전은 물론 대기업이나 대학 등의 강제 분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일부터 해수욕장 개장...방역 빈틈없도록

전남 도내 해수욕장이 내일 일제히 개장한다. 8월 30일까지 50일간이다. 무안 홀통-툼터미 해수욕장을 제외한 도내 53개 해수욕장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기로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지만 어려움은 겪고 있는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개장을 미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신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한 후 '안심 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해수욕장 내 파라솔도 '2m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며 설치된다.

도내 53개 해수욕장 가운데 15곳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심 해수욕장'에

약제'가 운영된다. 피서객이 해양수산부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고자 하는 해수욕장과 인원, 이용 날짜, 시간대를 미리 예약하는 제도다. 이들 해수욕장은 예약 인원을 낱짜와 시간대별로 한정한다. 시범 운영되는 '안심 해수욕장'에 약제는 피서객이 사전에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해수욕장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어 이용자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서객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피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 여름휴가 기간 동안 행정 당국과 피서객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서객들 상호간에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해수욕장을 관내에 둔 지자체는 빈틈없는 관리와 방역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학은 중세 시대 지식과 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 의해 탄생했다. 윌라 라틴어의 '유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으며, 초기에는 '길드'나 자치도시에서 단순히 '다수·복수·사람들의 집합체' 또는 '합법단체·법인단체'를 의미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최초의 대학이 생겨난 것은 1150년경이었다. 대학이 생기면서 종교 간, 국가 간, 지역 간 교류가 촉발됐고 이는 학문·예술의 전성기인 르네상스로 이어졌다.

도시를 기반으로 한 대학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산하면서 인류 발전을 이끌어나가기도 했다. 침착한 아이디어, 첨단과학, 고급 기술, 고차원의 예술 등이 요소소소에 적용되면서 도시와 국가는 과거에서 탈피해 미래로 향할 수 있었다. 대학과 함께 등장한 전문가들은 작게는 공동체부터 지역사회나 국가를 넘어 세계를 변화·혁신시키며 엄청난 권위와 명예를 얻었다.

전문가가 끼치는 영향력을 '전문가 효과'라고 한다. 언론이나 SNS를 통해 능력 검증받은 전문가들은 명성을 얻고 높은 소득도 보장받는다. 하지만 전문가가

가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심블리 미래를 예측해 혼란·혼신을 부추기기도 한다.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며, 현재·미래 문제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전문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전문가나 그 집단이 권력화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정부·지자체의 거의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라 하면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광주·전남의 각종 위원회나 자문·심의 기구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아파트 난개발 등 지역 현안에 있어서 '짚(진짜) 전문가'로서 사익을 버리고 공익적 관점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론만 시키며 엄청난 권위와 명예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럴 바에야 건전한 상식을 지닌 평범한 시민의 참여를 늘려 전문가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짚' 전문가



이태희 보리안과병원 원장

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시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눈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약국은 기본이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눈 건강 관련 영양제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 눈 영양제를 검색하면 수백 가지 제품이 검색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성분인 망막 질환에 사용되는 루테인 지아잔틴과 안구 건조증에 사용되는 오메가3이다.

눈 영양제와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녹내장, 당뇨 망막 병증과 함께 3대 안과 질환으로 꼽히는 황반 변성이 있

눈 영양제, 알고 복용하세요!

다. 황반은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반은 중심부의 루테인과 주변부의 지아잔틴이라는 색소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황반변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체내에서는 흡수나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루테인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옥수수, 상추, 호박 등의 짙은 녹색 잎채소 및 계란 노른자 등이 있다.

미국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복용함으로써 중등도 황반 변성에서 진행된 황반 변성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등도 건성 황반 변성 환자의 경우 5년이 지나면 25%에서 실명 위험이 큰 후기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는 하루 최대 섭취량을 20mg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기간 과도하게 복용한 환자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 영양제와 관련된 또 다른 질환으로 안구 건조증을 들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증상 또한 다양하다.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으로는 오메가3가 있다. 오메가3 역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해서 보충해야 한다. 오메가3는 주로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류와 호두, 들기름 등에 풍부하다. 오메가3의 역할은 지방산의 분해 과정인 베타 산화 과정을 촉진시켜 지질 대사를 개선시키고, 여러 염증 매개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며, 세포막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안구 표면의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안구 건조증 개선을 위해 하루에 복용해

야 하는 최소한의 오메가3 용량은 EPA + EPA = 600mg이고, 복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은 한 달이라고 하였다.

최근 오메가3가 실제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만, 이전부터 한국형 건성안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오메가3를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눈물 지질층에 문제가 있거나 눈꺼풀테염이 있는 안구 건조증 환자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자신에게 적합한 눈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불확실한 정보나 주변의 이야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후 찾는 게 바람직하다. 눈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우선 정확한 성분과 용량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또 영양제 선택이 아니라도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조기에 질환을 명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순서일 것이다.

기 고

성년이 된 심사평가원, K-방역의 숨은 조력자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관계 법령과 기준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적정인지 살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설립 이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평가, 진료 수가 및 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지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갈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올해 초스무살이 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간 국민들이 보내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K-방역의 숨은 조력자로 성장하여 그 역할을 든든히 해내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심사평가원의 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위한 IT시스템 운영이다. 즉 해외여행 이력확인 시스템(DUR/ITS)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보급하고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이 차단 되도록 대처하였다.

두 번째는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다. 대표적으로 음압 격리병상 가동 현황과 치료 약제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정부와 해당 의료 기관에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배정과 치료 약제 재고를 확인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 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단 시간만에 개발하여 정부의 안정적인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보건 의료 자원 영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케어한 사례로 평가되면서 향후 보건 의료 체계의 역할 확장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에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 개발자가 이를 이용한 서비스 어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대응활동은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OECD 회원국들과 공유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공항 검역소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농동 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흐름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주장인 케빈 스네이더는 포스트 코로나에 적용할 세 가지 경제 변화를 언급하였다. 정부의 개입과 감시, 비대면 시장의 활성화, 탄력성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가 더 편리하고, 더 개인화되는 사회 변화에 편승하여 디지털 상거래, 원격 의료, 자동화(로봇) 등 비대면 경제 부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의 변화가 가져올 뉴 노멀 시대에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탄력적인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수행 과제들을 선별하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국민의 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합축되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간에 수행해왔던 심사 평가의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스무살이 된 심사평가원, 앞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의 파트너로 지속 성장할 미래가 기대된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